

三笑窟 선향의 체취 재조명

통도사, 7월 13일부터 경봉 선사 선향 사업 본격 전개

“향기 소리 나는 깊은 곳에서 ‘삼부상차(相扶相茶)’라 서로 차나 한잔 나누세”

고려 시대부터 이어 온 차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근세 선승 중 한 명인 경봉 스님.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 주석하며 선객들과 차를 마시며 법담을 나누곤 했다. 극락암에서 하는 차 공양을 ‘극락선차(極落禪茶)’라 하고, 삼소굴에서 이뤄지는 차회를 ‘삼소다회(三笑茶會)’라 한다.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통도사와 극락암 경봉 문도회는 경봉 스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기를 맞아 7월 16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반 30주기 다례제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제에서는 이에 맞춰 발간된 경봉 스님 추모 사진집 <삼소굴 향성(三笑窟香聲)>이 봉헌되며 지역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경봉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13일부터는 경봉 스님 열

반 30주기 특별전 ‘삼소굴(三笑窟)’이 진행된다. 9월 23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경봉 선사의 친필 유묵, 달마도를 비롯하여 스님의 삶과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50년 간의 일기, 당대 선지식과의 문답을 담은 편지, 화엄산림 대법회의 역사를 담은 기록과 개승을 비롯하여 선사의 자취가 느껴지는 유품 등 약 350여점의 작품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 전시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친필 이외에 달마도, 선가심우도(禪家尋牛圖), 안거 해제운 등이 공개되는데 이는 선사로서의 경봉스님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13일부터 특별전, 다큐 등 다채

16일, 다례제·추모사진집 봉헌

은 편지, 화엄산림 대법회의 역사를 담은 기록과 개승을 비롯하여 선사의 자취가 느껴지는 유품 등 약 350여점의 작품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 전시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친필 이외에 달마도, 선가심우도(禪家尋牛圖), 안거 해제운 등이 공개되는데 이는 선사로서의 경봉스님을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살림살이가(喫飯喫茶人生)

일상 삼매의 소식이다.(日常三昧之消息) 이 소식을 알겠는가!(會得麼) 차(茶).

평소 스님은 차로 그 깨달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7월 16일 오후 8시와 18일 오후 3시 30분, 22일 1시 30분 불교TV에서는 경봉 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차와 관계된 스님의 행화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이밖에 통도사에서는 7월 동안 차를 주제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경봉 문도회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통도선문화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통도선문화재단은 통도사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에 지부와 수행센터를 설립한다.

통도사 측은 “자성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스님의 평소 가르침과 중생 교화와 구제에 헌신하신 그 서원을 되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경봉 스님은?

경봉 스님은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07년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1927년 촛불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었다. 한암 스님과 만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과 교류했고, 극락암에서 50여 년간 머물다 입적했다. 스님은 시·서·화 등 삼절에 선, 차까지 두루 갖춰 오절(五絶)로 불렸으며, 사찰에서 화장실을 지칭하는 ‘해우소’란 말을 만들기도 했다.

현대불교신문사·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원경제를 위해 사찰에서 스님들의 부도양식으로 영탑원을 경내에 만들고 있다. 이는 부도의 상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화장문화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 (사진=충남의 저사찰)

사찰에 세워지는 신도 영탑

불교의 장법은 전통적으로 화장이다. 부처님 입멸 후 불교교단에서는 화장을 기본적인 장법으로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교도입 이후 성속을 막론하고 화장을 일반적인 장법으로 생각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의 예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장법 역시 매장이 우선시되는 풍조를 보이게 되었으며, 불자들 역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그러나 묘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화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매장보다는 화장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스투파나 파고다 같은 사리탑이 불교의 상징이었듯이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 역시 불교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이다. 부도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묘탑으로 기능하였으며, 그것은 법제문도(法界門徒)들이 선사를 섬기는 지극한 마음에서 건립하는 정신적 의미를 가진다.

불교에서는 남녀신도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산골짜기 등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후손들에게 화장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갑자기 신도들을 화장한 유골을 부도와 같은 양식의 영탑으로 만들어 봉안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부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몇몇 사찰에서 이러한 형식을 도입하

부도형식 신도 영탑원 유행

화장 의미·부도 상징성 훼손

때, 스님들의 부도와 같은 형태를 원용함으로써 부도가 가진 본래적 의미와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매장법을 화장법으로 바꾼 것은 불교의 선진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찰에 영탑원을 만들어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것은 불교교단에서 생 각한 본래적 의도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적으로도 경 관적으로도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불교의 건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법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연등 아래 장엄한 연화장 세계

삼광사 제1회 연등축제 공모전 금상 수상작

삼광사가 주최한 ‘제1회 삼광사 연등축제 전국사찰 촬영대회’에서 김영진 씨의 ‘연등 1’이 금상을 수상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화산, 심사위원장)는 6월 18일 ‘제1회 삼광사 연등축제 전국사찰 촬영대회’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삼광사 연등축제 행사 기간 내 촬영한 삼광사 사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심사는 삼광사 대명 스님을 비롯해 한국사진작가 협회 부산지회 3명이 맡았다. 이번 공모전에는 900여점에 달하는 작품이 출품돼 CNN 선정된 ‘한국의 아름다운 곳 50선’ 중 하나인 삼광사의 풍광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금상(법화상)에는 김영진 씨의 ‘연등 1’, 은상에는 김재석 씨의 ‘우리가족이름’과 최관석 씨의 ‘기원’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동상 3점, 가작 5점, 특별상 5점, 입선 62점도 선정됐다. 시상식은 7월 1일 삼광사 대웅전에서 열렸으며 금상에 100만원,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30만원, 가작에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선정작 전시는 7월 3일부터 삼광사 경내, 7월 4~13일까지 부산시청 지하철거에서 열렸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민족통일불교협, 국민화합대법회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해)가 주최하는 ‘국가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불교도 국민화합대법회’가 6월 29일 부산 백소극 3층 그랜드볼룸에서 봉행했다.

사회복지법인 충효사비원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려는 부산불자들의 마음이 모아졌다.

법회에는 전국 30여 종단 중정 및 총무원장 스님과 류우의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20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일불선교종 중정 정각 스님의 개회선언

으로 시작된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회 회장 화산 월인 스님의 봉행사에서 이어 원감 해공 스님(충효사비원 이사장)의 법어가 진행됐다. 법회 이후 행사에서는 해공 스님을 포함한 5명이 통일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류우의 통일부장관의 ‘실용정부의 통일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됐다.

끝으로 이날 모인 불자들은 ‘국가안보와 호국불교를 위한 결의’를 통해 ‘호국불교의 전통을 소통과 나눔의 정신으로 승화해 국가 변명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자’고 발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석종사 어르신 위문 잔치

칠곡 석정사(갑주 노사나)는 7월 5일 칠곡 기산평생학생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위안잔치에서는 고무려 전통음악 및 난타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석정사 갑주 노사나 보살은 10여년 동안 청송북부 제3교도소 불교교육부와 교정위원으로 2군사령부, 수송교육부대, 청송교도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은적사 숲속여름 불교학교

대구 은적사(주지 허주)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동안 숲속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은적사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수련생(초등부) 50여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는 ‘연꽃처럼 꿈과 향기로운’을 주제로 만남의 날, 화합의 날, 나눔의 날로 나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3)653-1572

손문철 대구지사장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지발각속양초

① 약쑈초 90cm ×90cm ② 약쑈초 연봉 원기둥 7.0 f ×34cm ③ 약쑈초 돈타레 5.6 f ×27cm
 ④ 약쑈초 밀대 4.7 f ×25cm ⑤ 약쑈초 1호 5.9 f ×18cm ⑥ 약쑈초 2호 5.9 f ×14cm
 ⑦ 약쑈초 3호 4.7 f ×13cm ⑧ 약쑈초 4호 4.7 f ×10cm ⑨ 약쑈초 4호 반야심경 4.7 f ×10cm
 ⑩ 약쑈초 3호 반야심경 4.7 f ×13cm ⑪ 약쑈초 2호 반야심경 5.9 f ×14cm ⑫ 약쑈초 1호 반야심경 5.9 f ×18cm
 ⑬ 약쑈초 밀대 전사제(반야심경, 연화) ⑭ 약쑈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연화,홍암이,금) ⑮ 약쑈초 연봉 원기둥 전사제(반야심경,연화,홍암이,금)

한뎃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 f ×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 f ×27cm
 ④ 밀납초 밀대 4.7 f ×25cm ⑤ 밀납초 1호 5.9 f ×18cm ⑥ 밀납초 2호 5.9 f ×14cm
 ⑦ 밀납초 3호 4.7 f ×13cm ⑧ 밀납초 4호 4.7 f ×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f ×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f ×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제(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제(반야심경,연화,홍암이,금)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제(반야심경,연화,홍암이,금)

도자기 인등

인등용 파리핀 오일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흰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영리 35-16